

● 인성이 전투력이다 <1> 달라지는 2017년 육군 인성교육

# 더 밝아지는 육군의 내일 '존중과 배려'를 색칠하다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가 병영혁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장병들이 바른 인성을 갖췄을 때 병영 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근절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과 자발적인 태도로 군 생활을 함으로써 전투력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일보는 우리 군의 인성교육 정책과 현장을 두루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 '인성이 전투력이다'를 새롭게 시작한다.

첫 순서는 지난해부터 군 내 장병 인성교육을 주도해온 육군의 진일보한 2017년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 종합 추진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육군은 올해 그동안 구축한 기반을 토대로 '제도화'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인성교육을 생활 속의 육군 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 ▶간부 인성함양 교육

육군은 올해 간부 인성교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기관 인성교육이나 리더십 진단·순회교육·서포팅 지원, 지휘관 주관 간부 인성교육은 세부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보완해 시행하는 한편 '초급간부 인성함양 캠프'를 새롭게 시작한다. 오는 11일 꿈·희망·미래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추진하는 이 캠프는 사단급 연 12회, 여단급 연 6회 이상 시행하는데 초급간부의 자기 발견 및 대인관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해 군 복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전투력 향상을 꾀하는 '가족사랑 캠프'도 확대, 사·여단별로 연간 2회 이상 시행할 방침이다.

### ● 인터뷰 전성대 육군본부 인사기획과장

## “무형 전투력의 핵심은 사기와 단결... 올바른 인성이 중요한 이유죠”

“육군 인성교육의 목적은 전 장병이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를 통해 군 복무 중에 전우들끼리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전역 후에는 건전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육성하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가정과 학교, 군과 사회로 이어지는 국가적 교육체계에서 중단없이 진행함으로써 우리 군이 국가방위는 물론,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육군의 '2017년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 종합 추진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육군본부 전성대(대령·육사 47기) 인사기획과장은 우리 군의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을 제

###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 교육

기존 인성교육·전입병 비전설계 교육, 분대장 리더십 교육 지속.  
'전역병 미래설계 교육' 창의적인 내용 추가.



### 기획 및 생활화 교육

'책 읽는 병영 만들기' 사업 확대. 올해까지 전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 설치와 운영 완료.  
독서코칭 시행 부대 전군 기준 올해 250개로 늘어남에 따라 육군도 확대 예정.

###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 교육

기존의 신병교육 중 인성교육과 전입병 비전설계 교육, 분대장 리더십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자대 복무 중 인성함양 교육'은 확대한다. 장병들 간의 신뢰 형성과 공동체 의식·전우에 함양을 통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군 복무를 유도하는 이 교육은 민간 전문기관의 강사나 자대 간부가 진행하는데 민간 전문기관 교육은 국방부의 기관 선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전역 예정 병사를 대상으로 군 생활을 정리하고 복무 자긍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전역병 미래설계 교육'은 육군 표준프로그램을 준수하

되 창의적인 내용도 추가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기획 및 생활화 교육

독서, IPTV를 통한 콘텐츠 활용, 종교활동, 감사나눔운동, 충·효·예 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성을 갈고 닦는 '기획 및 생활화 교육'에서는 '책 읽는 병영 만들기' 사업이 확대된다. 올해까지 전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 설치와 운영을 완료하고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독서코칭은 시행 부대가 전군 기준으로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250개로 늘어남에 따라 육군도 지난해 140개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가영 기자

### 인성교육, 생활 속의 육군문화로

간부 인성교육 내실화에 집중  
초급간부 캠프도 신설 운영  
신병·전입병·분대장 등  
복무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장병 간 신뢰·전우에 돈독히

■ 편집=유현애 기자

“투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한 전 대령은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병영생활 전반에서 인성교육 '봄'이 조성된다면 우리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급 부대의 인성교육은 지휘관들의 지휘 관심도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휘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국민적 신뢰와 지지,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육군의 인성교육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가영 기자

